말없이 미소로 주고받은 法



新 불교사자성어

② 염화미소(拈花微笑)

'꽃을 들어 보이자 미소를 지었다'는 뜻이다. 염화미소를 다른 말로는 '염화시중(拈花示衆, 꽃을 들어서 대중에게 보이다),' 또는 '염화일소(拈花一笑)'라고도 한다. '화(花)'자 대신 '화(華)'자를 사용하여 '염화미소(拈華微笑)'라고 하기도 한다.

'미소(微笑)'는 '말 없는 웃음' '소리 없이 웃는 웃음'이다. '가장 아름다운 웃음'이라고도 할 수 있다. 우리말로 형용하면 '빙긋 웃는, 입가의 엷은 웃음'을 뜻한다. 의미적으로는 '상대방의 마음을 알고 있다' '이해하고 있다'는 뉘앙스를 갖고 있다.

미소 가운데는 '백제의 미소' '천년의 미소'라고 하는 '반가사유상의 미소'가 있다. 국보 78호와 국보 83호의 두 반가사유상의 미소는 시공을 초월하여 전 세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일본 교토 고류지(광륭사)에도 똑같은 반가사유상이 있지만, 백제의 미소까지 그려내지는 못했다고 일본 미술사학자들도 토로하고 있다.

대부분의 불교사자성어, 불전고사성어(佛典故事成語)에는 일화가 얽혀 있는데 염화미소 역시 예외는 아니다. 〈대범천왕문불결의경(大梵天王問佛決疑经)〉 제3권 '여화품'에서 염화미소의 태동을 찾을 수 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영축산(영취산, 기사굴산) 정상에 있는 영산회상(靈山會上)에서 설법을 하실 때의 일이다. 고대 인도 마가다국의 수도인 라자가하(왕사성) 동북쪽으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자리한 영축산은 부처님께서 수많은 경전을 설하신 곳으로도 유명하다.

부처님의 법문을 듣기 위해 마하가섭, 수보리, 사리불, 목건련, 아난 등 10대 제자를 비롯하여 많은 제자들이 모였다. 부처님께서 법문을 하시기 위하여 법상에 오르셨다. 그런데 법상에 오르신 지 한참 동안 묵묵히 앞만 응시하고 계셨다. 이것을 선에서는 '양구(良久)' '묵연양구(默然良久)'라고 한다.

이윽고 부처님께서는 법문 대신 '앞에 있는 꽃을 한 송이 들어 대중에게 보이셨다. 전례 없는 부처님의 행동에 그 까닭을 모르는 대중은 서로 얼굴만 쳐다보았다. 바로 그 때 수제자(首弟子) 마하가섭이 미소(微笑)를 지어 보였다. 부처님께서 꽃을 들어 보인 의미를 오직 마하가섭만이 알아차렸던 것이다. 부처님께서 마하가섭의 미소를 보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나에게 있는 정법안장(正法眼藏)과 열반묘심(涅槃妙心), 실상무상(實相無相), 불립문자(不立文字) 교외별전(教外別傳)의 심오한 이치를 마하가섭에게 부촉한다."(〈대범천왕문불결의경〉 제3권 여화품).

정법안장이란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최고의 진리, 정법의 진리, 반야지혜를 가리킨다. 정법안장을 가섭 존자에게 부촉한다는 것은 곧 가섭에게 법을 전한다는 뜻이다. 염화미소는 부처님과 제자 가섭의 마음이 상통했음을 뜻한다. 그것을 선불교에서는 '이심전심(以心傳心)'이라고 하는데, 주로 스승과 제자의 깨달은 경지가 거의 같을 때, 그리하여 스승이 제자에게 법을 전할 때 사용한다. 언어 문자가 아닌 마음이 통하여 마음으로 진리, 정법안장을 전했다는 것이다.

중국의 선불교는 이 '염화미소'의 고사(故事)에서 발원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외별전(教外別傳, 경전 외에 특별히 전한)의 미소'라고 할 수 있다. 중국 선불교(선종)의 초조는 보리달마이고, 2조는 혜가인데, 이들이 모두 선(禪)의 법맥 상으로는 부처님께서 염화미소로 가섭에게 전한 불립문자, 교외별전의 가르침을 계승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역사적 사실과 일치하는 것은 아님).

염화미소는 선수행자들이 참구한 공안(화두)으로도 널리 전해졌다. 선종(禪宗)의 여러 어록과 문헌에 수록되어 있는데, 선의 대표적인 공안집인 〈무문관(無門關)〉 제6칙에 '세존염화(世尊拈花)'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말이 많은 세상, 말과 매체가 수도 없이 널려 있어도 '자기주장'만 하고 있는 세상, 소통하기 힘든 세상이다. 오로지 자기주장, 자기생각만 옳다는 것은 우치(愚癡)의 소산이라고 할 수 있다.

윤창화 민족사 대표

덕산의 방망이 삼십 방



격절록 강설

② 제1칙 덕산시중(德山示眾)

[古則과 着語]

擧, 德山示眾云 "今夜不答 (言猶在耳) 問話者 三十棒" (打云 "喫棒了也") 時有僧出禮拜 山便打 (忘前失後漢) 僧云 "某甲話也未問" (却較些子) 山云 "你是甚處人" (換却眼睛) 僧云 "新羅人" (却換德山眼睛) 山云 "未踏船舷 好打三十棒" (大小德山 作這般去就) 法眼拈云 "大小德山話 作兩橛" (漆桶夜生光) 圓明拈云 "大小德山 龍頭蛇尾" (烏 龜鑽破壁)

덕산이 대중에게 말했다. "오늘 밤엔 대답하지 않겠다. [이 말이 아직까지도 귀에 쟁쟁하다.] 묻는 자는 삼십 방이야!" [(선상)을 치고 말했다. "(이미 삼십) 방망이를 먹었다!"]

그때 어떤 스님이 나와 절을 하자, 덕산이 바로 쳤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된 놈이로다!]

스님이 말했다. "저는 아직 묻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금은 괜찮군.]

덕산이 말했다. "그대는 어디 사람인가?" [눈동자를 바꿔버리는구나!]

스님이 말했다. "신라 사람입니다." [도리어 덕산의 눈동자를 바꿔버렸다.]

덕산이 말했다. "뱃머리를 밟기도 전에 30방을 쳤어야 했다." [덕산정도 되는 양반이 맨날 이런 식이군.]

법안이 염(拈, 거론)해서 말했다.

"별 것 아닌 덕산의 말이 두 개의 말뚝이 되었다." [칠통 같은 밤에 빛이 난다.]

원명이 염해서 말했다.

"별 것 아닌 덕산이 용두사미가 되었도다." [와(烏)! 거북의 등을 뚫고 벽을 부수는구나.]

[拈古와 着語]

雪竇拈云 "二老宿 雖善裁長補短 舍重從輕 (錯 下名言) 要見德山 亦未可 (還曾夢見德山麼) 何故 德山大似握闔外威權 有當斷不斷 不招其亂底劒 (險) 諸人要識新羅僧麼 (莫是闍黎) 只是撞著露柱的瞎漢" (自領出去)

설두가 염해서 말했다.

"두 노장(법안과 원명)이 아무리 긴 것을 재단해서 짧은 것을 보완하고, 무거운 것은 버리고 가벼운 것을 따르는 것은 잘 했어도 [착(錯, 틀렸다)! 하지만 명언을 했다.] 덕산을 보고자 했지만, 역시 보지 못했다. [(설두 스님은)꿈속에서라도 덕산을 본 적이 있소?] 왜냐하면 덕산은 마치 변방의 장군이 위엄과 권위를 장악하고 있는 것과 같아서 마땅히 끊어야 할 때 끊지 않아도 혼란을 초래하지 않는 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험(險, 위험하다)!] 대중은 신라 스님을 알고자 하는가? [혹시 스님(설두)이 아니오?] 단지 노주(露柱)에 부딪친 눈 먼 놈일 뿐이다." [(스님이나) 스스로 죄를 인정하고 (관가에) 출두하시오!]

*덕산(德山)은 덕산선감 선사로, 용담숭신의 법을 이었으며, 주금강(周金剛)이라고도 불렸다.

*법안(法眼)은 법안종의 개조 법안문익, 원명(圓明)은 운문문언의 법을 이은 덕산연밀 선사를 뜻한다.

*원문의 대소(大小)는 문맥에 따라 달리 표현하였음을 밝혀둔다.

*'마땅히 끊어야 할 때 끊지 않아도 혼란을 초래하지 않는 검'은 결단하여야 할 때에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오히려 난을 당하게 된다(當斷不斷 反受其亂)는 사마천의 〈사기(史記)〉 '춘신군전(春申君傳)'에 나오는 말을 인용한 것이다.

*자령출거(自領出去)는 선가에서는 주로 자기의 일을 자백하는 뜻으로 쓰이는데, 위에서는 직역을 하였다.

강승욱 법사



신해행증으로 본 백문백답

② 믿음(信) 편 2

종교는 믿는 것인가, 아는 것인가?

종교는 기본적으로 무엇인가를 믿는 체계다. 그 무엇에는 종교를 창시한 교주(教主)와 그의 가르침인 교리(教理), 그리고 교주와 그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교단(教團)이 포함된다. 이를 가리켜 종교의 3대 요소라 한다. 불교의 경우 교주인 석가모니 붓다(佛)와 그 가르침인 법(法), 교단인 승가(僧)가 이에 해당된다. 대개의 종교는 이 셋을 갖추고 있다.

엄밀히 말하면 종교적 믿음은 불완전한 믿음이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 옳은지 그른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종교적 믿음이 사실인지 아닌지 검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과학은 가설을 세우고 실험이나 관찰을 통해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는 체계다. 실험이나 관찰을 통해서 사실 여부에 대한 분명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보류하면 된다. 그러나 종교는 이런 검증체계를 통해서 신이 존재하는지, 전생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신앙과 과학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카테고리의 벽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처럼 종교는 검증의 체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를 인간의 이성이나 경험을 통해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다. 서구 중세 신학자들이 대표적이다. 그들은 무려 천 년에 걸쳐서 존재론적 증명, 우주론적 증명, 도덕론적 증명 등 어렵고 복잡한 시스템을 고안하여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했다. 예컨대 존재론적 증명을 삼단논법을 통해 정리하면 이렇다.

대전제 : 신은 완전자이다. **소전제** : 완전하기 위해서는 관념 속에서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존재해야 한다. **결론** : 따라서 신은 존재한다.

완전자, 즉 완전한 존재라는 신의 개념에 어울리기 위해서는 실제로도 존재해야 한다는 뜻이다. 왜냐하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완전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어린 아이가 도화지에 사과를 그렸다고 해보자. 그림 속 사과와 실제 먹을 수 있는 사과 중에 어느 것이 더 완전하다고 할 수 있을까? 당연히 실제로 눈앞에 있는 사과가 더 완전하다. 이처럼 신도 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실제로 존재해야 논리적으로 타당하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그런데 이를 타당한 증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결론이 타당하려면 전제들이 옳거나 사실이어야 하는데, 신의 완전성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이 증명은 전제 속에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는 곧 인간의 이성을 통해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는 지적 오만이 부른 무모한 시도일 뿐이다. 일종의 범주의 오류(category mistake)라고 할 수 있다.

중세 신학자들의 이러한 시도들이 무의미한 것만은 아니었다. 이를 통해 종교는 검증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라는 소중한 교훈을 얻었기 때문이다. 즉 신앙과 이성은 서로 카테고리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종교는 믿음의 대상이지 결코 검증의 대상이 아니다. 검증을 통해 신의 존재나 전생을 확인할 수 있다면, 이를 믿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이처럼 종교적 신앙은 일반적 의미의 앎, 즉 지식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지식은 경험적이든 분석적이든 검증을 통해 그것이 옳다는 것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신이나 내세가 존재한다는 종교적 언명들이 검증을 통해 사실로 확인되면 이 역시 지식이라고 할 수 있다.

종교는 이성과 경험을 통해 어떤 객관적 사실을 밝히는 일이 아니다. 이는 불교라고 해서 예외일 수 없다. 전생의 존재여부를 지구 밖에 금성이 있음을 밝히는 것과 같이 확인할 수는 없다. 모든 종교는 과학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 자기 삶을 되돌아보고 질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가르침이다.

결론적으로 종교는 믿는 것이지 아는 것이 아니다. 종교적 믿음을 과학이나 이성을 통해 검증하려는 태도는 난센스(nonsense)라 할 것이다. 종교적 믿음에는 지식과는 견줄 수 없는 삶의 중요한 의미들이 가득 들어있다. 사람들이 종교를 신앙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앞으로의 글들은 이를 확인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이일야 전북불교대학 학장

동방불교대학 2019학년도 전기
신입생 모집 공고

한국불교의 미래를 리드하는 동방불교대학이
새로운 인재를 기다립니다.

교육비 안내
- 전형료 : 5만원
- 입학금 : 20만원
- 등록금 : 학기당 100만원

모집요강

1. 본교는 본 종단의 종법(교육법 제19조/22조)이 정한 기본교육기관으로서 출가득도자의 의무교육기관이다.
2. 본 종단의 합동득도수계산림을 통해 사미(니)계를 수지한 자 및 정사(재가승)는 본교에 입학해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승적취적 및 법계 등 각종 자격고시 응시자격을 부여받는다.
3. 본 종단으로 전종하여 입적할 승려는 본교에 입학해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한다.
4. 범패학과 신입생은 매년 1학년 입학을 원칙으로 한다. (편입학불가)
5. 본교가 개설하고 있는 모든 학과 공히 출가자(사미·사미니 포함)와 재가자 모두 응시 가능하다.
6. 본교는 한국불교태고종이 설립한 종도양성 의무교육기관으로서 정부당국의 인가여부와 무관하다.

모집인원 및 편제 〔 접수인원 미달 시 폐강될 수 있습니다 〕

학 과	모집인원	편 제	비 고
불교학과	00명	2년제	정규반
범패학과	00명	2년제	정규반

전형일정 〔 입학전형의 서류심사는 학사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

구 분	날 짜	장 소
원서교부 및 접수	2018. 12. 17(월) ~ 2019. 02. 08(금)	동방불교대학 교학처 www.dongbang.org
서류심사 결과통지	2019. 02. 14(목)	개별통지 www.dongbang.org
합격자 발표	2019. 02. 20(수)	개별통지 www.dongbang.org

지원자격 : 본교 지원자는 공히 다음 사항 중 **한 가지 이상**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1. 본 종단의 합동득도수계산림을 통해 사미(니)계를 수지한 자 및 정사(재가승)로서 교육이수의무 대상자
2. 본 종단으로 전종하여 입적한 승려로서 교육이수의무 대상자
3.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불교교학·불교의식을 수학하고자 하는 자
4. 본 종단 간부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불교교학·불교의식을 수학하고자 하는 자

특 전 1) 동방불교대학 졸업시 선덕 법계 품수 2) 동방불교대학 졸업생이 사교,대교(2년) 졸업시 중덕 법계 품수

접수서류 및 접수방법

학 과	제출서류	제출방법
공 통	① 입학원서(소정서식) 1부 ②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③ 기본증명서 1부 ④ 수계증 사본 1부(해당자) ⑤ 승적증명서 1부(해당자) ⑥ 종단간부 추천서 1부(해당자) ⑦ 사진: 반명함판 3매, 명함판 2매 (득도수계자는 가사장삼 수한 모습)	• 동방불교대학 교학처 직접 방문 또는 우편 발송 접수 • 접수처 동방불교대학 교학처 Tel 02) 745-2030 교학과장 010-7236-0900

동방불교대학 Dongbang Buddhist College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
동방불교대학 교학처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1길31 (사간동112) | 우 03062

www.dongbang.org
Tel 02) 745-2030
010-7236-0900
Fax 02) 739-3470